

프로야구 전망대

KIA, 초반 부진 딛고 중위권 도약 노린다

KIA타이거즈가 초반 부진을 딛고 이번 주 중위권 진입을 노린다.

KIA는 지난주 주중 LG트윈스와의 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한 뒤 주말 NC다이노스에게도 루징 시리즈를 당했다. 올 시즌 SSG랜더스와의 개막 2연전에 패배한 이후 좋지 않은 흐름이다. 그 결과 2승 6패 승률 0.250으로 승패마진 -4를 기록했고, 순위는 공동 8위에 위치했다.

현재 선두권과의 격차는 크다. 1위 SSG와 5.0게임차, 공동 2위 NC·kt위즈와는 4.5게임차로 벌어져 있다. 다만 중위권과는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위치에 있다. 4위 삼성라이온즈와는 2.5게임차, 공동 5위 LG·한화이글스와는 2.0게임차다. 이어 7위 두산과는 0.5게임차, 롯데·키움과는 같은 위치에 있다.

이번 주 예정된 경기에서 반드시 하위권 탈출에 성공해야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는 KIA다.

현재 팀 타선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 개막 이후 8경기에서 팀 타율 9위(0.232), 안타 10위(61개), 홈런 공동 8위(5개) 등에 머물렀다. 득점권 타율 역시 리그 9위(0.208)에 머물렀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개막 이후 3경기에서는 중심 타선을 필두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나 이후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다.

먼저 외국인 타자 카스트로는 8경기 32타수 8안타 1홈런 6타점 타율 0.250을 기록했다. 초반에는 5할 타율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내리막을 걸으면서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

이범호 감독은 카스트로에 대해 "개막 초반 경기에서 잘 쳤기 때문에 다른 팀들이 장단점에 대해 분석했을 거다"며 "앞으로 한국 야구에 적응해 간다면 분명히 좋은 타격을 할 수 있는 선수다"고 언급했다.

나성범(7경기 타율 0.214)과 김도영(8경기 타율 0.250) 또한 아직 몸이 풀리지 않고 있다.

앞으로의 팀 승리를 위해서는 이들이 반드시

7~9일 광주 삼성전...10~12일 대전 한화전 승률 0.250 리그 공동 8위...투·타 반등 주목



지난 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NC다이노스와의 홈 개막 3차전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한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살아야 한다.

마운드에서는 '에이스' 네일과 올라가 활약을 이어가는 중이다. 네일은 2경기에서 11이닝을 소화하며 5피안타 6사구 10탈삼진 평균자책

점 1.64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비록 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승리를 챙기지 못했지만, 여전한 구위를 자랑하고 있다.

올라의 호투 역시 눈에 띈다. 그는 2경기에서

13이닝을 소화하며 6피안타 1사구 8탈삼진 평균자책점 0.00의 맹활약을 선보였다.

올라는 지난달 31일 LG전에서 6이닝 3피안타 1사구 3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를 펼쳤다. 이어 지난 5일 NC전에서는 7이닝을 던지면서 3피안타 5탈삼진 무실점으로 쾌투했다.

이로써 올라는 팀의 2승을 모두 챙겼다.

영건 김태형 또한 지난 2일 LG전에서 5이닝 3피안타 4탈삼진 2실점으로 기대 이상의 투구를 보여줬다.

반면 이의리(2경기 4.2이닝 평균자책점 13.50)와 양현종(1경기 4이닝 평균자책점 6.75)이 부진하고 있는 점이 뼈아프다.

불펜에서는 성영탁과 전상현, 김범수 등이 뒷문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 다만 정해영과 조상우가 각각 평균자책점 11.57, 6.75로 불안한 모습이다.

타선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현재 마운드의 활약이 경기 결과로 직결되는 만큼, 빠른 안정화가 필수적이다. KIA는 이런 상황에서 주중 경기를 삼성과 치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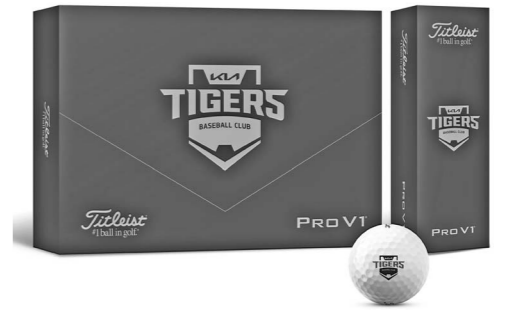
삼성에는 현재 4승 1무 3패 승률 0.571로 리그 4위에 자리했다. 팀타율 7위(0.247)와 평균자책점 2위(3.82)로 모두 KIA(팀타율 0.232·평균자책점 5.00)를 웃돌고 있다. 원태인, 멧 매닝, 이호성 등이 줄부상을 당했음에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KIA가 이번 시리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선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만날 삼성은 7일 양강섭을 선발로 내보낼 예정이다. 이에 KIA는 양현종을 선발로 투입한다.

삼성과의 일정을 마친 KIA는 주말 대전으로 이동해 한화를 상대한다.

시즌 초반 부진을 겪고 있는 KIA가 이번 주 삼성과 한화를 겪고 순위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Titleist x TIGERS #1 ball in golf



KIA-타이틀리스트 협업 상품 출시 커스텀 디자인 골프공 등 패키지

KIA타이거즈가 전 세계 골퍼들에게 사랑받는 골프 브랜드 '타이틀리스트'와 협업 상품을 출시했다. KIA와 타이틀리스트는 협업을 통해 KIA타이거즈 엠블럼이 각인된 커스텀 골프공을 선보인다.

골프공을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타이틀리스트의 '커스텀 서비스'를 활용해 엠블럼 뿐만 아니라 원하는 숫자도 각인할 수 있어, 좋아하는 선수의 등번호 또는 의미 있는 숫자를 더해 특별한 패키지를 제작할 수 있다.

이번 협업 상품은 타이틀리스트 공식 홈페이지와 타이틀리스트 시티 투어벤(서울 소재)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 체육, 전국무대 기지개 켜다 전문·생활·우호교류 본격 레이스

전남 체육이 전국과 국제무대를 오가는 숨 가쁜 일정에 돌입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최근 올해 주요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일정을 확정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스포츠클럽, 국제교류를 아우르는 전방위 체육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전남 체육은 지난 2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남매초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본격 시동을 걸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대한민국 선수단 경기력지원단장으로 참여하며 국제 스포츠 현장에서 전남체육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어 같은 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는 종합 9위를 기록했다. 목표였던 종합 8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금메달 14개, 은메달 10개를 획득하며 메달 수에서는 목표치를 웃도는 성과를 거두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4월 이후 일정은 더욱 빽빽하다.

전남은 5월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10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해 시·도 대항전에서 경쟁력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대회도 잇따라 열린다. 4월 제65회 전남도체육대회를 시작으로 5월 제21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제, 9월 제38회 전남생활체육대축제까지 이어지며 도민 화합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전국 단위 생활체육 무대에서도 전남의 저력을 선보인다. 전남은 4월 김해에서 열리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도민 모두가 주인공인 체육' 실현에 나선다.

국제무대 일정 또한 눈에 띈다. 5월 목포에서 아시아투척선수권대회를 개최하고, 9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아시아게임에 참가한다. 이어 11월에는 여수에서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며 국제대회 유치와 참가를 병행한다.

국내외 교류 사업 역시 활발하다. 6월과 10월 한·중 생활체육 우호교류를 비롯해 서울시, 경북과 교류를 통해 생활체육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국 사민시, 일본 에히메현과의 국제 교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스포츠클럽 기반도 강화한다. 9월 영광에서 제2회 전남도 스포츠클럽체육대회를 개최하고, 11월 충북 제천에서 열리는 전국스포츠클럽 교류전에 참가해 지역 중심 클럽 육성과 선수 발굴 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체육회는 이 같은 일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종목별 맞춤형 강화훈련과 과학적 경기력 지원, 현장 중심 행정체계 고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개최 대회는 안전성과 운영 완성도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각오다.

송진호 회장은 "2026년은 전남체육의 경쟁력과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야 할 중요한 해"라며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개최 대회는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전남체육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 첫 생활체육 근대5종대회...시민 참여 눈길

전문선수 중심서 스포츠 축제 전환...저변 확대 첫걸음 김영근 회장 "유소년 선수 발굴 등 선순환 체계 구축"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린 생활체육 근대5종대회가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5일 무등수영장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제1회 광주시연맹회장배 생활체육 근대5종대회'가 동호인과 시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그동안 전문선수 중심으로 운영돼 온 근대5종을 생활체육 영역으로 확장한 광주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시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종목을 생활체육 무대로 끌어오며 저변 확대와 참여 기반 조성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근대5종은 수영과 펜싱, 장애, 사격, 육상 등 5개 종목으로 구성된 복합 스포츠다.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 여건을 반영해 수영과 육상, 레이저런(사격+육상) 등 3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각 종목에서 열정적인 레이스를 펼치며 근대5종만의 색다른 매력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운영 속에 참가자와 관람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민참여



지난 5일 무등수영장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제1회 광주시연맹회장배 생활체육 근대5종대회'에 참여한 동호인, 시민들이 경기를 뛰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여형 스포츠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전문체육의 영역으로만 인식되던 근대5종이 생활체육으로도 충분히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다.

2007년부터 광주근대5종연맹 회장으로 활동해 온 김영근 회장은 "오랜 시간 지역에서 근대5종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대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대회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유소년 선수 발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이번 대회는 근대5

종 저변 확대는 물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 발전 가능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을 발굴하고 지원해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이전 광주FC 경영본부장(왼쪽)과 김지영 광주탄탄정형외과 대표원장이 공식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FC

광주FC-광주탄탄정형외과, 선수단 의료지원 '맞손'

프로축구 광주FC가 지역 의료기관과 손잡고 선수단 의료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선다.

광주는 최근 광주탄탄정형외과에서 이현 구단 경영본부장과 김지영 광주탄탄정형외과 대표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6시즌 동안 구단과 병원이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선수단의 건강 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고, 다양한 공동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탄탄정형외과는 광주FC의 공식 협력병원으로 지정돼 선수단의 부상 치료와 재활

부상 치료 재활 등 의료지원 체계 강화 LED 광고·SNS 홍보 등 공동 마케팅

등 전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와 경기 복귀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의료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는 협력의 일환으로 홈경기장 내 LED 광고 운영, 구단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홍보, 스폰서십 노출 등 다양한 마케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광고 계약을 넘어 스포츠 구단과 지역 의료기관이 함께 만드는 상생 모델이라

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선수단의 전문적인 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기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영 광주탄탄정형외과 대표원장은 "광주FC의 공식 협력병원으로 함께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선수들의 건강과 빠른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지역 스포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현 광주FC 경영본부장은 "광주탄탄정형외과의와의 협력을 통해 선수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